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데스파시토〉, 레게톤, 라틴 팝 이야기

장혜영

올해 여름인 2017년 7월, 멕시코에 당도했더니 다들 레게톤(Reguetón)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예전엔 레게톤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던 거 같은데 올해는 왜 전부 ‘레게톤, 레게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루이스 폰시의 레게톤 〈데스파시토〉(Despacito)¹⁾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갖고 있던 유튜브 최대 조회수 기록까지 깼다는 것이 곧 뉴스에 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남았던 것은 ‘루이스 폰시’와 ‘레게톤’이라는 조합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폰시’하면 잘 생긴 얼굴로 애절하게 부르는 로맨틱 발라드나 라틴 팝이 먼저 생각나는데, 그 폰시가 강한 비트 위에 보통 랩이 들어가는 레게톤 곡으로 생애 최고의 히트를 쳤다니? 사실 〈데스파시토〉는 폰시 혼자 부른 게 아니고 레게톤 가수인 대디 양키가 음반과 뮤직 비디오 및 작곡에 함께 참여했다. 사실 이 곡 자체가 라틴 팝의 양식 속에 사랑을 노래하는 로맨틱 발라드와 톡톡 튀는 레게톤을 섞어 놓은 셈이기도 하다. 아무튼 푸에르토리코의 두 사나이, 폰시와 대디 양키는 약간은 낯설게도 보이는 이 조합으로 90년대의 ‘마카레나’에 버금가는 성공을 이끌어 냈다. 아마 본인들도 이 정도의 ‘대박’이 가능할 것이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이다.

1) ‘천천히, 조금씩’이라는 뜻이다.



파나마시티. 레게톤의 원조인 스페인어 레게가 여기서 시작되었다.(출처: 저자)

레게톤과 스페인어 레게, 자메이카 레게

레게톤(Reguetón 또는 Reggaeton)은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Reggae)에서 유래해 푸에르토리코 뮤지션들이 랩과 테크노 음향을 넣어 유행시킨 라틴아메리카의 대중 음악 장르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카리브해 음악, 특히 레게의 본고장인 자메이카 음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카리브해에는 일정한 리듬 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가사로 엮는 가창 음악의 전통이 있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자국 문화 유산으로 내세우는 칼립소(Calypso)와, 자메이카의 멘토(mento)가 대표적이다. 자메이카의 멘토는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아 스카(Ska)로 대중음악화하게 되고, 이후 록스테디(Rocksteady)를 거쳐 이후 나온 것이 레게였다. 레게는 라스타파리안 신앙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의 밥 말리 박물관의 동상. 레게의 아버지로 카리브해 음악에 큰 족적을 남겼다.(출처: 저자)

(Rastafarianism)을 지니고 있었던 밥 말리가 주도하다시피 한데다 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운동과 변혁 운동이 들끓던 196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 나왔기 때문에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담은 카리브해 가창 음악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음악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더브(Dub)라고 부르는 리믹스 편집과 디스코 자키들의 토스팅(Toasting)이 대표적이다.

레게 리듬을 깔고 디스크자키들이 즉흥적 코멘트를 리드미컬하게 내뱉던 것이 토스팅인데, 지금은 만국 공통의 음악 언어가 되다시피 한 랩(Rap)의 시초가 되었던 셈이다. 기존의 음반 음악을 짜집기 하거나 변형해 새로운 음향을 만드는 더브 역시 자메이카 음악 전통 속에서 나왔고, 이러한 레게의 요소들은 80년대 힙합 문화의 등장에 역할 모델이 되어 주었다. 결국 카리브해의 대중 음악 요소들이 미국의 주류 음악에 영향을 주며 입성한 셈이 된다. 사실 힙합(Hip-hop) 문화가 미국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는데, 아프리카계와 라틴계가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끈 리드미컬한 랩과 그래피티, 역동적인 댄스 등을 오늘날에는 힙합 문화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레게와 힙합의 랩은 성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뮐라야 뮐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또 레게는 카리브해를 타고 파나마로 건너가 스페인어 레게로 발전하게 되었다.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와 철도 건설 때문에 카리브해 다른 나라들에서 넘어온 노동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들이 각자 고향의 음악과 문화를 들고 왔고, 자메이카의 레게 또한 파나마에서 유행해 스페인어로도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8~90년대쯤에 이르면 시대적으로 이미 힙합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파나마의 스페인어 레게는 좀더 랩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영어로 평화롭게 부르던 자메이카 레게와는 달리 스페인어의 강한 액센트 때문에 박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더 가까워져 빨라지고 강해졌다. 레게톤은 이 스페인어 레게의 특징을 잡아내 대중의 입맛에 맞는 리듬으로 장르화한 것이다. 스페인어 레게를 레게톤화 한 것은 푸에르토리코 뮤지션들로, 독특하게 튀는 템 보우 (Dem bow) 리듬을 썼다. 자메이카의 레게 가수인 샤바 랭스의 노래 〈템 보우〉(1990)에서 처음 쓰여진 리듬이다.

푸에르토리코 음악의 역사, 라틴 팝의 역사

레게, 힙합, 레게톤 등은 반복되는 리듬 위에 사회 비판적 가사를 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록(Rock) 또한 기존 세대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전자 기타를 치며 시작됐으니 대중의 저항 심리를 자극하는 것에서부터 대중 음악이 시작된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대중 음악이기 때문에 상업화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음악이 잘 팔려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상업 음악사의 권고 사항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가열찬 비판과 독설로 시작된 힙합도, 레게에서 시작된 레게톤도 상업화의 길을 피할 수 없었다. 밥 말리라는 거인이 존재했던 레게는 그나마 정체성을 지켰지만, 밥 말리 사후에는 평화와 사랑

을 노래하던 레게의 정신은 사그라들고 흥겨운 리듬만이 남은 느낌이 없지 않다.

레게톤은 레게와 초기 힙합의 비판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랑 이야기나 성적인 표현이 주가 되기 시작했다. 가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곡도 짧아졌으며 랩 위에 멜로디가 많이 들어가 댄스 음악화하거나 팝 음악화하기도 했다. 샤키라가 스페인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와 함께 부르는 〈고문〉(Tortura)을 들어 보면 레게톤 리듬을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들린다. 〈데스파시토〉 또한 전형적인 레게톤보다는 레게톤을 넣은 파풀러 송에 가까워 보인다.

레게톤도, 라틴 팝도 주도했던 나라가 푸에르토리코이다. 인구 350만 정도의 소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레게톤, 라틴 팝,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살사 등 많은 라틴 음악을 주도했고 리키 마틴, 호세 펠리시아노, 엑토르 라보에 등 수많은 음악인들을 배출한 게 신기할 정도이다.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어를 쓰고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라틴아메리카의 한 부분이자 미국의 자치령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활용해 라틴 팝 시장을 이끌었는데, 사실은 미국에 건너가 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푸에르토리코 계들이 미국 시장과 연결 고리를 해주며 끌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팝송이라 부르는 팝(Pop) 음악은 대략 1950년대 즈음에 형성된 대중이 듣기 좋은 적당한 길이의 가벼운 노래들을 일컫는다. 마음 편히 듣고, 유행 좀 하다가, 사라져가는 상업 음악의 전형인 셈인데 라틴 팝은 이 팝송에 라틴 리듬이 들어가는 것이다. 재즈도 그렇지만 라틴아메리카 음악, 특히 카리브해 음악 하면 반복되는 라틴 리듬 위에 각 악기의 기나긴 독주와 즉흥 연주가 끝없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5분여 안팎 길이로 적당하게 끊고 대중적인 가사의 노래를 얹어 대중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틴 팝은 새로운 소재에 목말라 있던 팝 음악계를 활성화시키며 일찌감치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80년대 경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라틴계 이민자들이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노래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러나 90년대로 넘어가며 라틴아메리카 출신들이 직접 미국의 음반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90년대 말에 크게 뜬 푸에르토리코 출



산 크리스토팔 요새에서 바라본 라 페를라(La Perla) 지구. 〈데스파시토〉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했다.(출처: 저자)

신의 별 중 한 명이 리키 마틴(Ricky Martin)이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공식 노래였던 〈인생의 컵〉(La copa de la vida)과 〈리빙 라 비다 로카〉(Livin' la Vida Loca)가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라틴 팝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제목에서부터 영어와 스페인어가 섞인, 이른바 스팅글리쉬 노래였던 리빙 라 비다 로카〉는 “라틴 팝과 댄스는 이렇게 신나는 거야!”를 줄창 외치는 듯한 빠른 리듬으로 라틴 팝의 전성기를 열었다.

〈데스파시토〉와 대중 음악의 에로티시즘

다시 현재 2017년으로 돌아와 〈데스파시토〉의 뮤직 비디오를 보자. 안무의 구도를 보면 리키 마틴의 〈리빙 라 비다 로카〉와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20년전 곡인 〈리빙 라 비다 로카〉의 공연 때면 언제나 여왕 역할을 해주는 프리마 댄서가 등장해 혼자 벨리 댄스를 추듯

시종일관 몸을 흔들고, 그 주변을 여러 쌍의 남녀 무용수들이 격하게 커플 댄스를 추며 분위기를 돋구곤 했다. 미국에서 촬영된 뮤직 비디오에서는 크로아티아계 모델인 니나 모릭(Nina Moric)이 리키 마틴의 ‘그녀’ 역할을 해주었다. 작금의 〈데스파시토〉의 뮤직 비디오는 미국이 아닌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 후안의 라 페를라 지구에서 촬영되었는데, 카리브해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프리마돈나에 해당하는 여인이 낯은 거리와 바다에 등장한다. 미스 유니버스 출신인 슬레이카 리베라가 바로 그녀로, 초반에는 아이들에게 청순한 미소를 보내는 바닷가 소녀처럼, 후반에는 몸이 다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미인 대회에서 워킹하듯 등장한다. 그리고 커플 댄서들이 그 주위에 등장해 노골적인 접촉을 서슴지 않는 춤을 취 분위기를 돋운다. 90년대 말경부터 푸에르토리코 등 카리브해에서 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선정성 논란을 낳고 있는 페레오(Perreo) 춤의 동작도 나온다. 사실 〈데스파시토〉의 성공은 사실 이 과감한 성적 묘사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가사도 숨김없이 사랑의 행위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다니엘 루고가 안무한 거침없는 춤이 대중의 눈길을 끈다.

사실 대중 음악계에서 성적인 묘사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리빙 라 비다 로카〉도 티나 란돈의 안무가 〈데스파시토〉 못지 않게 자극적이었다. 한국의 K-팝이 자랑스레 내세우는 여러 아이돌 그룹들을 보더라도, 10대의 발랄함만으로는 상업적 성공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엔 섹시댄스에 귀착하기 마련이다.

〈데스파시토〉는 대중이 라틴 뮤직에 원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담아냈다. 달콤한 사랑의 노래, 어깨가 절로 들쭉이게 하는 강한 비트의 랩, 그리고 금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화끈한 라틴 볼룸 댄스... 그 상업성과 선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든 없든, 현재의 대중은 ‘라틴’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요소들을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며, 그런 이상 상업 음악계는 계속해서 제2의 데스파시토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것이다.

장혜영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학부 강사